

광주일보 11기 리더스아카데미-류한수 상명대 교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알려지지 않은 이면들' 강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면 들여다보아야”

역사는 검정·하양 어딘가의 회색
가해·피해자 선부른 규정 경계를
16일 리더스 아카데미 음악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책임은 두 나라 중 어느 쪽에 있을까요?”
지난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11기 리더스 아카데미’ 강단에 선 류한수



지난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11기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류한수 상명대학교 교수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역사적 연원과 현황: 알려지지 않은 이면들’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상명대학교 교수는 ‘우문(愚問)’을 던져보겠다고 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류 교수는 “질문에 대한 답안으로 ‘러시아 책임 100%’를 대부분 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러시아 70%-우크라이나 30%를 꼽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역사적 연원과 현황: 알려지지 않은 이면들’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복합적인 성격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류 교수는 ‘역사는 회색’이라는 전제를 두고 입을 폈다. 역사는 100% 검정, 100% 하양이 없으며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다.
“국대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이 앞다퉈 러시아를 가해자, 우크라이나를 피해자로 규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침략을 한 쪽이 비판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두 국가 간 충돌을 단순화하는 것

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학자가 통념과 다른 역사관을 말하면 큰 반발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사학자가 감내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 러시아 전문가로 손꼽히는 류 교수는 러시아 혁명과 2차 세계대전 등이 얽힌 유럽 현대사를 연구해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국내의 분위기에 대해 ‘러시아 혐오’(루소포비아)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종교가 국적과 같았던’ 근대 이전에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은 사실상 같은 ‘민족’이었다고 설명했다.
“1997년 모스크바에 머물 때 하숙집 주인은 우크라이나인이었고, 그의 전 남편은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민족 혼합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도 쉽게 접할 수 있지.”

류 교수는 우크라이나 출신 두 문학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열을 조명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미국 영화 ‘타라스 불바’(대장 부리바-1962년) 원작자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코사크 출신 러시아 소설가 니콜라이 고골(1809-1852)과 우크라이나어를 문학어로 정립한 타라스 셰우첸코(1814-1861)의 문학관을 들여다봤다. 니콜라이고골은 자신의 정체성을 러시아 제국의 백성으로 여겼지만 타라스 셰우첸코는 우크라이나 민족의식을 싹틔운 지식인으로 성장했다.
류 교수는 1940년대 이른바 ‘인종 정소’를 자행한 스테판 반데라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오늘날의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의 ‘네오 나치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복합적 성격을 ‘우크라

나 민족주의자 대(對)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 독립주의자’,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미국 대 러시아’ 등으로 층위를 나눠 분석했다.
“미국과 서방의 바람과는 달리, 러시아의 푸틴 정부가 단시일 안에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러시아가 패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러시아가 될 것이고, 그 반대라면 유럽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감정은 최소한 수십 년, 길게는 한 세기 넘게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현 전쟁의 결과가 러시아 안팎에 미칠 파급력은 무거울 것입니다.”
한편 오는 16일 오후에는 광주시 남구 임암동 북함문화공간 ‘어반북’에서 ‘광주일보 11기 리더스 아카데미 음악회’가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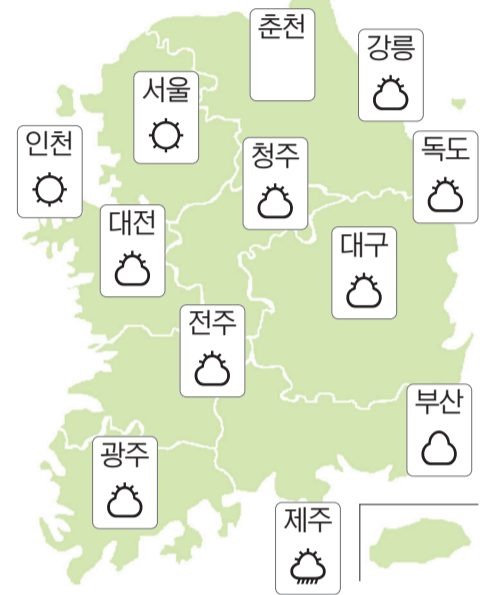
해돋이	05:32	달뜨기	01:16
해지기	19:27	달지기	11:23

일교차 커요

내륙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광주	구름많음	14/23	보성	흐림	10/20
목포	구름많음	13/21	순천	흐림	12/21
여수	흐림	14/20	영광	구름많음	11/22
나주	흐림	10/22	진도	흐림	12/21
완도	흐림	13/21	전주	구름많음	13/25
구례	흐림	10/23	군산	구름많음	12/23
강진	흐림	11/22	남원	구름많음	10/23
해남	흐림	11/21	혁신도	구름많음	12/19
장성	구름많음	10/22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2:35	07:14	--:--	19:19
여수	08:28	01:55		
	20:12	14:14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낮음	보통

◇ 주간 날씨

13(토)	14(일)	15(월)
☁	☁	☁
13/23	13/25	15/27
16(화)	17(수)	18(목)
☁	☁	☁
16/29	16/28	16/26

김현국 탐험가 6번째 유라시아 횡단 출정식



김현국(54) 탐험가가 ‘길은 평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6번째 유라시아 대륙횡단에 나섰다. 지난 10일 오후 5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2023 트랜스 유라시아 출정식’에 이병훈 국회의원과 이강현 아시아문화전당장, 한희원 작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대장정을 축하했다.
〈사진〉
그는 1-5차 대륙횡단 때 이동수단으로 모터바이크를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최초의 지역 노사상생형 일자리 작품으로 광주에서 생산되는 캐스퍼 소형 SUV(998cc)를 자비로 구입해 몰고 간다. 오는

11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과 러시아 횡단도로를 이용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왕복 횡단(3만km) 할 계획이다.
김현국 탐험가는 “첫 노사 상생모델인 ‘캐스퍼’를 대륙횡단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세상의 길을 가는데 이념과 생각의 ‘서로 다름’을 넘어 함께 가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번 6차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통해 겨울 환경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길에 대한 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지혜학교 교사회 ‘김용근 교육상’ 수상



제29회 김용근 교육상 수상자(단체)로 대한학교인 지혜학교 교사회(사진)가 선정됐다.
석은(確證) 김용근기념사업회(이사장 김이수)는 제29회 김용근 교육상을 지혜학교 교사회에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금 500만원.
사업회는 “지혜학교는 인문학적 지혜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찰하는 지성인을 기르고 창의적, 실험적 교육을 시도하면서 대한교육의 새 장을 열고 있다”며 “지혜학교 교사들이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했던 석은 김용근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김용근 교육상은 김용근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선생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과 육군 형법 위반죄로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등 민족 독립 운동을 선구적으로 실천했다. 광주제일고, 전남고 등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했으며, 1976년 유신반대 학생시위 책임자로 교단에서 물러났다. 5·18 당시에는 윤환봉과 정용화를 숨겨줘 계엄사에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시상식은 15일 오전 11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옆 김용근 선생 흉상 앞에서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중문-이순례씨 아들 문수군, 서상우(전 광남일보 편집부국장-전 화순전남대병원 홍보팀장) 백양숙씨 딸 혜정양=27일(토) 낮 12시 광주 서구 제아트 웨딩홀 3층 알루체홀.

알림

▲스마트폰도 배우고, 인생2막 정보 공유 모임 = 완전 무료. 60대 이상 초보자 환영. 스마트폰 기초부터 영상편집까지 배우기+ 성공적 인생2막을 위한 정보 나누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12시, 금남로 1가 예정. 010-2626-5018.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

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에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속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담당 무료상담=정신건강&

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을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물레타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부음

▲정동영씨 별세, 김명원씨 부부상 = 발인 5월 13일 오전 9시, VIP장례타운 VVIP 101호.